

장수군, '10일 멈춤 운동' 전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장수형 거리두기·개인 방역 준수 당부

장수군에서 격리 중이던 접촉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가 31명으로 늘었다.

지난 14일 장수군에 따르면 자가 격리 중이던 접촉자 1명이 의심증상을 보여 코로나19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추가 확진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격리 중이던 자택 소독을 실시, 함께 거주한 가족 2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격리 조치했다.



장수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0일간 멈춤 운동'을 전개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장수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0일간 멈춤 운동'을 전개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10일간 멈춤 운동' 내용은 ▲실내·외 어디서든 마스크 꼭 착용하기 ▲가족과 지인 만남은 자제하기 ▲불필요한 관내·관외이동 자제하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 및 가족, 외부인의 장수군 방문과 만남 자제 등이다.

또 군은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하고 장수·장계시장 등 문화·체육·복지·관광 등 공공시설물 44개소에 대해 운영을 중단했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로부터 방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상황이 아닌 만큼 절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10

일간 멈춤 운동' 등 장수형 거리두기 및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장수군은 계속해서 행진력을 투입해 철저한 방역과 관리로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안전한 무주산골영화제 위한 사전 유료예약제 운영

일반 온라인·군민 오프라인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오는 6월 3일부터 6일, 11일부터 13일까지 7일 간 개최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 유료예약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산골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매(일반 관람객 대상 수령은 당일 무주예체문화관 1층 무주산골영화제 티켓부스)가 18일부터 시작(화.12:00~28.금.24:00)되며 무주군민

에게는 1일 관람권 특별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무주군민 사전예약 접수는 18일부터 28일까지이며 매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무주산골영화관 현장에서 진행(무주군민 대상 예매서비스 안내 063-322-7053)한다.

무주산골영화제 1일 관람권과 덕유산국립공원 야외상영 1일 관람권 가격은 각 1만원(구입 시 무주사랑상품권 5,000원 권 제공)이며 무주군민은 5천 원에 구입이 가능(신분증 제시 후 관

람권&무주사랑상품권 5,000원권 수령)하다. 관람권은 1인당 1일 최대 4매까지 예약할 수 있다.

무주군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김성욱 팀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리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주민들께서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관람객은 물론, 주민들 모두의 안전과 산골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영화제 지원과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귀농·귀촌인 대상 프로그램 호평

무주군이 귀농·귀촌인과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정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인과 예비 귀농·귀촌인을 상대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웃들과의 소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주여건 발달을 마련하는 데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14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체재형 가족농원 입주자와 '농촌에서 살아보기'에 참여한 입주자 30

명을 대상으로 관내 무주군 명소탐방 현장 견학을 실시하면서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이번 현장교육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무주군이 보유한 국내 유명 관광지들로 꼽히는 적상산사고지, 안국사, 머루와인동굴, 만남의 광장, 태권도원, 반디랜드 등 4개소를 방문했다.

이들 관광객들은 역사와 전통이 서려있는 곳으로 국내 명소로 부상하면서 해마다 국내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명소다. 이에 명소탐방은 관광해설사가 동행해 무주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무주의 역사와 현재 모습을 체험하고 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21일부터 이를 동안 초보 귀농·귀촌인 20명을 대상으로 '야외용 화목난로 만들기' 교육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받기도 했다.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강혜경 팀장은 "귀농·귀촌인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과 무주군으로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춘성 군수와 김광수 군의장은 카드형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출시를 기념해 NH농협은행 진안군지부에서 카드 발급을 개시했다.(왼쪽부터 김광수 의장, 전춘성 군수, 정미경 지점장)

카드형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출시

지류·카드·모바일 합산 월 50만원 충전·10% 할인 구매 가능

진안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4일 '카드형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첫 출시했다.

전춘성 군수와 김광수 군의장은 카드형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진안고원 행복카드) 출시를 기념해 NH농협은행 진안군지부에서 카드 발급을 개시했다.

카드 발급은 진안군과 농협은행 진안군지부, 진안·부귀·백운농협, 인삼조합, 무진장축협이 카드형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지참하고 농협은행 진안군지부 및 관내 농·축협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충전과

발급이 가능하며, 휴대전화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착)' 앱을 다운 받은 후 회원가입, 카드등록, 운영계좌 연결, 충전 순으로 진행을 마치면 신청 후 7일 이내 카드형 상품권을 등록된 주소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충전(구매)금액은 지류와 카드, 모바일을 합산해 월 5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10% 할인 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

진안고원행복카드는 관내 580개소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충전금액 초과나 비 가맹점, 후불 교통카드 사용, 관외 지역에서 사용 시에는 연결 체크카드 계좌에서 결제가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정여립 관련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진안군은 지난 14일 진안군 문화의 집에서 전주비전대학교와 함께 '정여립의 역사문화 재조명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춘성 군수와 김광수 군의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학술연구용역은 정여립 관련 문화유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한 객관적·학술적 근거 확보와 역사 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정여립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을 통한 진안군민의 정체성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정여립 관련 문화유산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주 발제자로 대동사상 기념사업회 신정일 이사장(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이 '기축옥사와 정여립의 진안 죽도, 어떻게 재조명할 것인가?'에 대한 주

제발표를 했다. 신정일 이사장은 정여립과 대동계의 근거지이자, 기축옥사의 현장인 죽도와 천반산 일원을 명승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정여립 사건의 역사적 성격과 대동사상의 위상을 검토하여, 그것이 역사적·학술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정민 교수(전주비전대학)는 정여립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들 중심으로 진안군의 기존 관광 명소와 연계한 역사·문화·관광 벨트의 구성안을 제시하며, 죽도와 천반산, 웅치전적지를 연계한 진안의 역사·문화·관광 스토리 제작과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날 정여립 관련 홍보 동영상 이 현장에서 상영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 동영상은 향후 정여립 관련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한시 생계 지원금 신청하세요"

진안군이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19~2020년 대비 2021년 1월~5월까지 소득이 감소하고,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65만7,000원), 재산기준 3억원 이하 가구이며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와 같은 복지 급여를 수급했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방문돌봄봉사자생계지원 등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다만, 대학생 근로장학금과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5월 28일 22시까지 세대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요일제를 적용해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5월 17일~6월 4일 18시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동일 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차 6월 25일, 2차 6월 28일에 신청 시 요청한 금융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농촌일손돕기 나서

진안군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농번기철이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14일 농업정책과 직원들은 백운면 운교리에 있는 사과농장을 찾아 사과(열매숙기) 작업을 돕는 등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